

불자 세상보기



정윤선 참여불교재가연구대 사무총장

“진화론 퇴치 첫 성과, 고교 교과서에 ‘시조새’ 사라진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기독교계 언론인 국민일보 1월 4일 자에 올라온 적이 있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교진추)가 작년 12월 5일에 “과학자 131인의 서명을 받아 시조새에 관한 기술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청원”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출판사들에 답변을 요청하고 반 이상의 출판사가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겠다는 답을 했다는 것이다.

“게으른 생물교과서, 진화론 개정 공격 받다”라는 기사가 실리면서다. 교진추가 시조새 삭제 성공에 힘입어 3월 말에 다시 제출한 “말의 진화계열은 상상의 산물이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교과부와 일부 출판사에 의해 다시 수용된 것이 발단이었다. 이번에는 “187명의 과학자가 서명”했다고 한다.

결국 6월 5일에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에 “한국이 창조론의 요구에 항복했다”라는 기사가 실리며 한국은 세계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한국 과학계는 반응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국 과학자 86%가 교과서 진화론 삭제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시·도 교육감의 교과서 수정·보완 시한인 9월 말 이전에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키로 했다. “교과부의 연락을 받

았을 당시 종교관련 단체가 아니라 학계 의견이 줄었다. 교과부가 출판사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한 출판사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면 진화론 삭제 청원을 낸 ‘과학자’ 들은 누구인가?

교진추는 ‘한국창조과학회의 교과서 위원회’와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가 통합되어 2009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한국창조과학회는 보수 개신교계의 지원을 받아 교과서에 기독교 창조관을 신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다. 이제 MB 정권 말기에 그들의 30년 노력이 결실을 보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한동대 총장 김영길)을 비롯해 많은 회원들이 우리나라 최고 과학교육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출신이고 KAIST내에 창조과학 전시관이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김영길

총장은 ‘과학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은 공로’로 KAIST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이버과학에 대해 과학계는 더욱 적극 대응해야 한다. 시조새에 관한 수십 년 전 이론이 실려 있는 교과서를 방지해 공격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도 너무 느렸다. 외국의 과학지에 한국의 과학정서에 대한 우려가 표명된 이후에야 반응을 하는 무책임성은 그들이 한국과학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물리화학연구소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을 과학기술자들은 알고 있다. 그들은 또 과학교과서의 내용을 바꾸는 데는 교과부 담당자들의 관료주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패배주의에 빠져 관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국 창조론에 항복” 세계가 조롱

社說

쇄신의 씨앗은 뿌려졌다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의 첫 분수령이었던 중앙총회개 쇄신입법들을 모두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총무원장 발의로 제출된 △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 △ ‘사찰운영위원회법’ 전문 개정안 △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 ‘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과 이월 안건이었던 선거법 제정안은 쇄신 계획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사찰에는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사부대중이 모두 사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선 사찰 예산회계 원칙들이 명문화돼 전문회계사를 통한 감사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영수증 발급도 추진된다. 선거법 제정안으로 종단의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총재에도 종단이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종도들의 관심이 높았던 ‘중앙총회 의원 불칭계권 삭제’ 종헌 개정안이 부결돼

총범 개정안에 가서 축소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집행부 견제가 이유라고 하지만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굳이 축소를 고집해야 했는가 싶다.

그럼에도 이번 임시 중앙총회는 조계종 쇄신으로 가는 초석을 놓았다는 데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총무원의 쇄신 계획이 탄력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6월 7일 발표된 쇄신계획은 특별한 것이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논의돼왔던 의제들이었다. 쇄신계획은 이를 실현하자는 선언이고, 종회의 의결은 쇄신의 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제 쇄신의 씨앗은 뿌려졌다. 남은 것은 총무원의 효율적인 총재 실행과 사부대중의 실천만이다.

‘출가학교 열풍’의 메시지를 읽자

조계종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이 7월 1일부터 9일까지 미항사서 개원하는 청년 출가학교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호응도가 가히 폭발적이다. 지원 마감 결과 250명이 접수를 마쳤다. 평균 경쟁률이 6대 1을 넘는다. 지원자 이력도 화려하다. KAIST, 서울대, 화가 지방생, 의대생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젊은 인재들이 산사로 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의 멘토로 구성된 우수 강사진과 전액 무료라는 과격 지원이 이들을 산사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많다.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미국 햄프셔대 교수 해민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렇듯 멘토 열풍, 출가학교 지원 열풍 등의 사회문화적 현상은 이 시대 한국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언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행복에 목마른 현대 지식층에게 불교라는 큰 버팀목이 필요했던 것이다.

바로 한국불교는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집착과 번뇌를 떨쳐 낼 수 있게끔 정신적 안정을 선사해야 할 것이다. 중앙종무기관에서도 이 시대의 요청을 깊이 새겨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승풍전각의 열기와 이원화 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 불교계에 출가학교의 열기는 30여년 전에도 있었다. 범정 스님이 송광사 수련원장 시절 ‘단기출가’ 수련회를 개설했을 때도 이미 3개월전에 입소자가 마감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종교가 다르거나 갖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곳서 불자가 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출가학교의 열기가 단발성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된다. 정법불교의 당간을 바로 세우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한국불교가 이 시대의 영원한 멘토가 되도록 우리 불자들이 힘을 모으자.

WFB 한국대회 절반의 성공...개선 과제

여수 WFB 한국대회서 6월 15일 중국과 티베트 문제가 불거지며 중국불교계가 철수하는 등 우려곡절 끝에 나흘간의 일정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다. 전 세계불자들이 불교가 세계의 사상적 대안이 되기를 서원한 WFB한국대회,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 속에 대회를 겪으며 느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티베트 관심 불러 일으킨 계기 진옥 스님 WFB한국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이로서 아쉬움을 먼저 토로한다면 시간의 촉박함이 있었다.

중국과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조율을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행사 당일 중국 종교국의 강경한 자세로 대회 진행에 옥의 티를 남겼다. 결과론적으로는 중국의 무례함을 드러내 티베트에 대한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티베트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으면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일각의 목소리는 공식지부로 대회 원칙에도 어긋난 뿐더러 자비와 평화의 부처님 정신에서도 벗어난 것이라 본다.

티베트 대표 퇴장과 관련된 WFB총회에서 한국 집행위와 상의가 없었던 점은 유감이다.



국제행사에 대한 경험 부족 이치란 WFB태국본부 집행이사

이번 WFB대회에서 세계불자들은 한국불교전통과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날 진행된 화엄사와 송광사 성지순례는 세계불자들이 한국 불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22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돼서인지 국제행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 외에 국제불교교류 측면에서 본다면 한중일 삼국불교에 치중해 온 점이 한계를 드러낸 대회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한국불교는 한중일 삼국 교류에서 시야를 보다 넓혀야 한다. 한국불교계가 WFB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세계 불교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층더 성숙해지고 국제대회에서 역량을 키웠다는 의미로 삼았으면 한다.



대회 위한 대회 되지 않아야 이만옹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WFB사무총장으로 22년 전 한국대회현장에 있기도 했지만 WFB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몇몇 스님 기여도에 따라 WFB지부에 종단이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모습, 대회 전반이 승단 위주로 돌아가는 점은 변모해야 한다.

이번 학술대회만 본다면 세계불자들이 진지한 대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세력이 아닌 준비된 것을 낭독하는 수준에 벗어나지 못했다. 통역 문제부터 시간, 커뮤니티 부족 문제 등이 다각도로 노출됐다. 또 모처럼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학술포럼도 한국 색채가 보다 더 드러나야 했다. 이점에서 본부와 집행위, 일선 학자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 향후 대회가 수습역을 들여 하는 말잔치, 대회를 위한 대회가 되지 않게 불교계가 노력하자.

Table with 2 columns: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fax, and website.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www.durianshop.com

하기척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